

4. 은행 대출의 출자 전환 유도

- (특징과 배경) 은행의 기업 주식 소유 한도를 15%로 늘려 대출금의 출자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부실 채권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, 지속적인 국내 기업의 경영 악화와 부실채권 누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
- (기대 효과와 문제점) 공정성 확보와 은행의 자율경영체제가 전제될 때 실효성이 기대될 것임.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경영의 정상화가 미진한 상태에서 은행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, 그리고 은행을 통한 정부의 기업 통제력 강화가 우려됨
- (향후 과제) 출자 전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상호보증의 은행신용 전환이나 지주회사 설립의 조기 허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, 기업은 적극적인 재무 전략의 강화, 기업 설명회(IR) 등의 강화가 요구됨

○ 대출금의 출자 전환 허용

-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 없이 출자로 전환, 당해 기업을 자회사로 할 수 있도록 허용
 -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법안 공포후 2월말부터 시행
- 그 내용을 살펴 보면, 은행이 개별 기업의 주식을 15%까지 소유할 수 있고,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15% 초과도 가능
 - 현행 한도는 10%였으며 금융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이 없었음
 - 보완 조치로서 은행의 출자총액은 은행의 자기자본의 20% 이내로 제한
- (실시 배경) 기업은 고금리와 자금 유동성 부족 상태에서 채무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고, 은행은 대출 채권의 부실화와 추가적인 협조 용자 등 은행 건전성 악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출자전환에 따른 득실

- 기업의 입장
 - (긍정적 측면) 기업들은 신규 대출 보증(98년 4월부터)의 금지, 기존 대출 보증(99년말까지)의 해소가 불가피한 입장이며, 신규 대출의 경우 超고금리에 따른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부담의 경감이 필요
 - (부정적 측면) 기업 경영자는 출자 전환을 통해 은행의 경영권 관여에 따라 경영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음
- 은행의 입장
 - (긍정적 측면) 은행은 출자 전환을 통해 부실채권을 줄여 BIS 비율의 개선¹⁾을 꾀할 여지가 생김
 - (부정적 측면) 단기적으로 은행 대출금이 무수의 자산화되며, 장기적으로는 대상

1) BIS=(Tier I + II)/위험가중자산에서 Tier I 항목이 커짐으로써 BIS 비율이 개선됨. 단 Tier I = 주식 + 비누적 배당형 영구우선주+연결자회사에 대한 소수주주지분, Tier II = 누적 배당형 우선주+후순위채+대손충당금+기타 부채성 자본조달수단

기업의 회생 실패시 출자 전액을 잃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예금자의 자산 손실이라는 국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됨

○ 문제점

- (은행권의 금융개혁 미진) 현재 자율적 경영 체제의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관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음
 - 은행 출자액이 자기자본의 20%이내로 제한된 상태하에서도 은행이 기업 경영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음
 - 특히 보수적인 은행이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경우 미래 지향적인 기업의 투자 행태가 지나치게 현재 이익 중심으로 보수화될 수 있음
- (정부의 지나친 통제력 강화 우려) 은행의 소유 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기업 통제력 강화와 강제적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
- (금융기관의 장기 부실화 가능성) 출자 전환은 부실기업의 차입금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,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업 정상화 대책은 될 수 있으나, 궁극적인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 해소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임
- (도덕적 해이 문제) 은행이 특정 기업에 대해 부실 대출을 했을 때 이를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출자를 전환하는 등 오용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. 또한 기업의 경우, 대출을 비합리적으로 늘리거나 경영 상태가 어려울 경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은행으로 전가하려는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음

○ 보완 과제와 기업의 대응

- (정부의 과제) 은행의 실질적 책임경영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, 은행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허용에 따른 감독기능의 확충도 철저히 병행
 - 채권 은행이 해당 기업의 사업 영역, 핵심 경쟁 역량에 대한 평가 등 제반 경영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므로 은행권의 금융개혁을 강력 추진
 - 금융시장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, 국내에 진출한 해외금융기관의 국내 기업 지배도 활발해질 것에 대비한 철저한 금융감독행정이 필요할 것임
 - 출자 전환만으로는 부실채권 해소나 기업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, 신용등급에 근거한 상호보증의 신용대출 전환, 순수지주회사의 조기 설립 허용 등이 필요함
- (기업의 대응) 자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 등 투자 신인도를 제고하고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경영 혁신 계획의 수립·발표 등 종합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 노력과 기업 설명회(Investor's Relation)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임진국 jklim@hri.co.kr)